입사 2년차 평사원이 9개월간 116차례 걸쳐 100억대 빼돌렸는데…

아무도 몰랐다?…횡령 도운 제2인물 있나

전남 골프장 회계담당자 검거…115억 횡령사건 미스터리

지난해 영업이익 10억…회계 전문가들 "단독 범행 사실상 불가능"
"스포츠 도박 탕진" 통장잔고 8500원…대부분 도박 계좌 송금된 듯
경찰, 다른 인물 연루 여부 수사…외부 운영 자금 유입 가능성도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의 범인이 검거됐지만 오히려 의혹이 커지고 있다.

회계담당자가 9개월 동안 116회에 걸쳐 막대한 회사자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을 두고,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계담당자 단독으로 저지르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회사가 회계상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부터 수개월동안 막대한 금액을 횡령 했는데도 들키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골프장측은 지난 24일 오후 5시께 A씨가 총 115억원을 빼돌렸다며 112로 신고했다.

2017년 9월 입사해 같은 해 11월부터 회계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 간격으로 5000만원~2억원씩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횡령금 중 30여억원은 회사긴급자금 등으로 재입금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도피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했다고 진술했으며, 그의 통장에는 달랑 8500원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횡령자금 대부분이 인터넷 도박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횡령과정에 다른 인물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회계 시스템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회계 담당자가 최대 수억원 정도는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는 있지만, 현행 기업의 회계 전산 시스템상 정상적인 회사자금을 수개월동안 들키지 않고 빼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회사규모를 떠나 평사원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음대로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회사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번에 횡령사고가 터진 골프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재무제표 기준 총매출액이 100억원 수준으로,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10억여원으로 알려지면서 회계상 100억원대의 횡령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골프장의 운영기간이 9년째라는 점을 들어 그동안 적립해 놓은 이익금을 횡령당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광주지역 한 회계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회계담당이 막대한 자금을 수개월간 들키지 않고 빼낼 수는 없으며, 제2의 인물이 연루됐거나 기타 외부 운영 자금 등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매달 수십억원이 움직이는 법인통장을 출금한도 설정도 없이 평사원에게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계사의 입장에선 매우 이례적이고 다양한 의심이 가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채용이나 횡령 여부에 대해 말할 것이 없으며, 경찰쪽에 확인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야생동물 먹이주기 26일 광주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과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북구협의회원들이 생룡동 인근 야산에서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들을 위해 배추와 고구마 등을 뿌려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신설 경찰서 부지는 '첨단 3지구'

나노산단 인근 1만6000㎡ 확정
가칭 '중부서' 2022년 완공

광주의 신설 경찰서인 가칭 '중부서'의 부지가 북구 첨단 3지구 나노산단 조성 지역 인근 1만6000여㎡로 확정됐다.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치안 수요를 감당할 중부서 신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통상 신축에 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설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 지역 배분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현재 '중부서'나 '첨단서'라는 가칭을 쓰고 있지만, 방위에 근거해 경찰서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방위 작명법보다는 '빛고을경찰서'라고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설 경찰서가 담당할 관할 지역으로는 북부서 건국지구대 담당 지역인 북구 양산·연제·건국·본촌동과 광산서 첨단지구대 담당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광산구 수완지구 일부 지역과 북구 동운동 지역도 포함할지는 향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설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 지역은 개서 4개월 전에 확정하면 된다"며 "경찰서 신설이 가시화되면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명칭과 관할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낙지 먹다 기도 막혀 숨져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뇌사상태에 빠진 70대 남성이 치료 도중 숨졌다.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산낙지 한마리를 통째로 먹던 중 목에 걸렸다.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지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숨졌다.

A씨 유족들은 평소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 지르겠다" "불 났다" 117회 허위신고

광주서부경찰, 4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26일 100여 차례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문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부터 같은 날 새벽 5시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117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상무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불이 났다" 등이라고 신고해 경찰이 11차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이날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이 단골 손님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씨는 경찰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경찰에서 "술만 마시면 다혈질이 돼 화를 참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9범인 문씨는 지난 2015년 4월에도 1000여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징역 8월형을 받고 출소한 적이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렌터카에 고의 흠집 내고 고객에 덤터기

수리비 강요 3000만원 챙긴
렌터카 영업소장 구속

렌터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반납하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렌터카 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렌터카 영업소장인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21)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주와 대전의 한 렌터카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 반납받은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손님 51명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이 차량을 반납하면 상태를 살피는 척하다가 족집게 등 금속물질로 미세한 상처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1건당 20만~90만원을 받아냈다.

금속물질은 수건으로 감싸 손님 눈에 띄지 않도록 했으며, 범행대상은 여성이나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다.

A씨는 흠집을 광택제로 대충 지우고 차량을 또 다른 손님에게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가 영업소를 비우거나 휴가를 갈 때면 A씨의 사회 후배인 B씨 등 2명이 범행을 대신했고, 5만~1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차나 보험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젊은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차를 빌리기 전에는 차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멸치 어선 조업 중 크레인 무너져 선원 2명 부상

크리스마스날 멸치조업에 나선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해 선원 2명이 다쳤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해경의 발 빠른 이송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2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완도군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A호(27t, 승선원 6명)의 양망용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지며 B(71)씨와 인도네시아 출신 C(22)씨를 덮쳐 두 명 모두 머리를 크게 다쳤다.

오후 6시15분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시키면서 2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했다.

부상자들은 해경 함정을 타고 오후 8시15분께 완도항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여친 가슴 크기 비하했다 말다툼 끝 서로 폭행

쌍나팔

○…20대 남성이 함께 사는 여자친구의 가슴크기를 비하했다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해 나란히 경찰서행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3)씨와 B(여·23)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빌라에서 양팔을 할퀴고 물어 뜯는 등 몸싸움을 하다 서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만취한 A씨는 이날 속옷 빨래를 널고 있는 B씨에게 "보정 속옷을 입는다고 A컵 가슴이 C컵으로 커지느냐"고 놀렸는 데, B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의 말에 화가 나 속옷을 가위로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자르게 해 더 화가 나 몸싸움을 한 것"이라고 진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10614	1	남구 금당로3길8-3, 101동 14층 1507호 [진월동,협진휘미리아파트] 84.99㎡[정광일 지분26분의2전부.아파트로이용중]	아파트	12,000,000 12,00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12436	1	북구 천지인로191, 101동 5층 510호 49.95㎡[아파트로이용중]	아파트	107,000,000 107,000,000	2018타경17141[중복]
2018타경12900	2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17-6, 8층 802호 [쌍암동,에이엠시티4차] 32.3203㎡	아파트	98,000,000 98,000,000	도시형생활주택
	3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19, 8층 803호 [쌍암동,에이엠시티5차] 33.1446㎡	아파트	112,000,000 112,000,000	도시형생활주택
	5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463, 1동 3층 303호 [오성그린아파트] 83.31㎡	아파트	84,000,000 84,000,000	아파트로이용중
2018타경13194	1	서구 치평로107, 102동 14층 1403호 [치평동,대우금호아파트] 59.94㎡	아파트	173,000,000 173,000,000	아파트로이용중
2018타경67320	1	남구 서문대로823번길7-15, 1동 8층 812호 59.4㎡[김통수지분2분의1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아파트	46,000,000 46,000,000	복도식아파트,공부상1동이나현지표기101동
2018타경68019	1	광산구 선운중앙로45, 106동 10층 1003호 [선암동,선운모아엘가] 79.5181㎡	아파트	285,000,000 285,000,000	아파트로이용중
2018타경68590	1	서구 풍암순환로183, 101동 14층 1408호 [풍암동,우미광장아파트] 59.955㎡	아파트	178,000,000 178,000,000	아파트로이용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13477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707-2 170㎡[김영익,김영욱지분각2분의1전부]	대	217,866,000 217,866,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
		동소 709-3 531㎡ 제시외 다용도실 등 13.4㎡,목련 등 16주	대		
		나주시 금천면 갈산길 19-1 96.48㎡ 부속건물 창고 60.23㎡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8타경11082	1	북구 안산로47-4, 10층 1004호 [오치동,오치동도나우아파트] 49.6967㎡	다세대	143,000,000 143,000,000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으로이용중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12245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417 588㎡	전	7,408,800 7,408,800	맹지.묵전.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13286	1	남구 도금동 산13 17752㎡	임야	154,442,400 154,442,400	맹지.경계부근에묘요2기소재
2018타경13477	2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493-7 776㎡ 제시외 복숭아나무 26주	전	217,937,000 217,937,000	일괄매각.수목포함.현황과수원.목록2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529-10 1017㎡ 제시외 복숭아나무 31주	답		
2018타경68194	1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산162-1 19563㎡	임야	29,344,500 29,344,500	지적및현황맹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8타경12900	4	나주시 예향로3793, 2층 215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근린시설	122,000,000 122,000,000	주거용오피스텔
2018타경13088	1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81-1 399㎡ 제시외 데크등47.3㎡[제시외데크37.4㎡매각포함]	대	221,001,000 221,001,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토지보호옹벽[석축쌓기등]토지에포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441-13 99.3㎡[주택으로이용중,일부중층구조]	근린시설		
2018타경13682	1	동구 지산동 694-30 234㎡	대	683,725,720 683,725,720	일괄매각.목록2의3,4층공부상독서실,사무소이나주택으로이용중
		동구 지호로22-6 1층86.63㎡[공부상주차장이나점포로이용] 2,3층각127.42㎡ 4층97.33㎡제시외창고등76.16㎡[제시외건물포함]	근린시설		
[자동차,중기]					
2018타경14760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설죽로214번길 97, 101호[용봉동] 등록번호:13조2719 차명:K7 모델연도:2012	자동차	12,500,000 12,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동곡로430[월전동]평동주차장
2018타경68606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자동차로1번길 24 [임동] 등록번호:55두6921 차명:쏘나타[SONATA] 최초등록일:2011	자동차	4,500,000 4,5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2018타경69494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30 408동 1401호 [운남동,주공아파트] 등록번호:17수9049 차명:BMW 328i Convertible 모델연도:2009	자동차	18,000,000 18,0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금호동531하나로에프엔씨
[기타]					
2018타경12030	1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52-1 326㎡	대	623,797,970 623,797,97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2중로3류일부저촉
		동소 853-5 112㎡	대		
		장성군삼서면해삼로1103 1호 1층관리실,주차장69.55㎡ 2~4층각199.49㎡ 지하층단란주점,보일러실214.05㎡제시외창고등33.3㎡	여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1. 10.[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1. 17.[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잔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